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 도덕성에 관한 탐색

류 봉 선
대전문정초등학교

이 경 은
건양대학교

홍 성 용
한국과학기술원

영재들은 경험을 통해 많은 재능을 발달시켜나간다. 영재들의 재능 혹은 능력을 최대한 발현 시키기 위해서 학령기 초기부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재들이 가진 그들의 관심과 적성 및 흥미를 학령기 초기부터 알 수 있다면 성장하고 발달 하며 진로를 탐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초기에 해당하는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검사를 통해 유소년 영재의 정의적·인지적 특성을 탐색하여 유소년 영재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찰추천을 통해 선발된 유소년 영재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학년에 따른 결과는 2학년과 3학년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창의적 성향·다중지능·도덕성의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이 2학년에서 높았으며 3학년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소년 영재들은 남녀 구분 보다 발달적 이해와 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적절한 학습 환경의 초기노출이 유능한 인재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학년이 높을수록 앞으로 자기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제어: 유소년영재,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열정, 집중, 에너지, 긍정적 잠재력, 우수한 성취, 외골수, 외로움, 지나친 집착 등 다양성을 담고 있다. 최근 영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마치 영재는 하늘이 내려 준 것으로만 여겼던 예

교신저자: 이경은(geun-le@hanmail.net)

* 본 연구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166: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개발)의 일부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과 환경적 자극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현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예전에 영재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밝고 명랑하고 더불어 생활할 줄 아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소수지만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식에는 ‘영재’하면 특별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요즘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영재아동과 평범한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일반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과 자신에게 적합한 행복한 삶을 살고, 타인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다. ‘소 황제 증후군’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 부모들은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다. 영재아의 학부모들은 더욱 그러하며, 유소년영재를 키우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영재교육의 기회는 점차 확산되고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수·과학 영재와 비교해 볼 때 인문영재나 예술영재의 경우 정부 지원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유소년 영재의 경우는 더욱 낮은 편이다. 영재진흥법(2000)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영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은 유소년 영재의 경우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조석희, 2004)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어디서도 유소년영재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교육을 상담해 주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제6회째 실시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 주관 유소년 영재 캠프는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루에 불과한 단기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유소년영재들은 창의성과 개성이 주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정보화된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쏟아지는 정보들을 처리해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 유소년 영재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소년 영재캠프를 통해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을 살펴보고 도출된 결과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유소년 영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소년 영재 2, 3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창의적 성향·창의적 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하위 요소들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유소년 영재들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은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II. 선행연구

1. 유소년 영재의 특성

영재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자료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자긍심이 강하고 자율성과 자발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에 비판적이지만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세워 보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Gallagher, 1972; 조석희, 1996; 전경원 2003). 또한 많은 양의 정보와 빠른 속도 융통성,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 학습을 선호(허창재, 2002)한다. 반복을 싫어하고 학습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또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포함하며 사고능력이 높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여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Renzulli & Reis, 2003).

유소년 영재는 언어발달이 빠르고 어휘사용이 또래의 연령보다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어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추상적 개념과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조작능력이 뛰어나고 관심분야에 강하게 집중하며 자기 일에 편중하여 몰두되어 있다(윤여홍, 2003).

영재성의 한 구성요소로 창의성을 설명하고 있으며(Renzulli & Reis, 2003), 학업적 영재성과 창의적 영재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학업적 영재성은 학교 공부를 잘 하는 능력으로 지능 & 인지검사를 통해 판별되며 창의적 영재성은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과 지식, 자료 산출물을 만든다.

인생을 성공함에 있어 높은 지능과 성취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능력과 재능이 영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고성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 모험심, 호기심 등을 포함하며, 반성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의 특성은 풍부한 어휘, 문제해결, 빠른 학습능력, 적용능력이 있다. 그리고 상상력, 집중력, 인내심, 낮은 불안감, 높은 자아개념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며 탁월한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Davis & Rimm,2004).

유소년 영재의 경우 영재성의 특성을 발현하기 위해 그 시작점에 서있는 마라토너와 같다.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높은 성취를 하여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과 창의적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노출시켜야 하며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창의적 성향 · 창의적사고력 · 다중지능 · 도덕성에 관한 연구

가. 창의적 성향과 창의적사고력

Renzulli & Reis (2003)는 창의성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 하주현(2000)은 성향 혹은 인성특성, 김영채(1998)는 문제해결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아직 무엇인

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창의성은 정의적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등정신능력이며, 개인의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결과를 생산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적, 동기적 특성이 중요한 요소로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나 업적이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1996, 1975, 1999, 2008).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듯이 창의적사고의 구성요인도 입장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전경원(2000)은 창의적사고의 구성요인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꼽고 있으며, Torrance (1972)는 창의적 사고를 인지적 요소로 보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에 있어 성향은 한 개인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상과의 특정한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내적 특성이며, 개인의 성취를 위해 둘러싸고 있는 사람, 사건, 사물, 동물 등 다양한 대상과의 상호작용이다.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자유롭게 탐색하는 사람이 가진 특성이다(이경은, 2010). 그 특징으로는 가설적인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 보일 때 창의적 성향이 된다. 그러므로 어렵고 복잡하며 다면성을 띠고 있으며, 하주현(2000)은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과 성취라는 의미로 호기심, 자기 확신, 상상, 인내, 집착, 유머감각,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등이라 하였다. Urban (1995)은 창의적 성향의 변인으로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 동기, 개방성과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을 꼽았다. 한순미(2005)는 창의성의 발현은 개인의 인지, 성격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창의적 성향을 연구해 왔지만 여기에는 공통된 단일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개인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 다중지능과 도덕성

Gardner (1983, 1999)에 의해 다중지능이 소개된 이후 지능이란 능력과 흥미를 가지며 아동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시야를 넓혀 주었다. 다중지능은 각 하위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능력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언어적 지능, 음악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의 구성요소로 활용된다고 하였으며 8개의 지능영역 내에서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문용린, 2004).

다중지능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여덟 가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IQ가 높지 않은 사람도 여덟 가지 지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은 독립적이다. 또한 하위영역은 문화적 영향일 뿐이며 동등하고 독립적인 것이다(Gardner, 1999; 문용린, 2004).

유소년 영재의 기초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혀 다른 요소를 측정하였는데 그것이 도덕성이다. 도덕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고 배우는 생활양식이며 형식이다(정옥분, 2004; 남궁설화,

2003). 피아제는 도덕성의 발달을 타율의 단계로부터 자율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부모나 성인에 의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규범에서 내적규범으로 발달에 간다는 것이다. 콜버그의 경우 도덕성을 3수준 6단계의 형식을 취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는 각기 다른 동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보다 높은 관점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면 본질적 도덕으로 본다고 한다(임규혁, 2007).

Boss (1994)는 도덕성을 본래적 가치를 소유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보살핌, 덕, 감정이입과 도덕적 민감성, 도덕 감정과 양심으로 간주한다.

도덕지능의 하위요소에는 7개의 덕목으로 감정이입, 양심, 자기조절, 존중심, 친절성, 관용성, 공정성이며 그중 감정이입, 양심, 자기조절을 핵심덕목으로 보고 있다(Borba, 2001; 조양희, 2008).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유소년 영재 캠프에 참여하게 된 초등학교 2, 3학년의 유소년 영재 9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영재의 조기 발견과 부모상담, 영재아동의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위해 캠프에 선발되었다.

캠프에 참여하게 된 유소년 영재는 대전광역시 전체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교사 및 부모의 추천을 통해 1차 선발된 후 현직 초·중등 영재학급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영재심화연수를 모두 마친 교사 5명, 기초연수를 마친 교사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2학년 43명, 3학년 47명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아동들은 각각 발명, 수학, 과학, 언어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나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선발 시 다른 영역보다 좀 더 흥미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영역을 구분 하였을 뿐, 영재 캠프에 참여된 모든 아동들은 시간에 따라 구성된 각 프로그램의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에 모두 참여되도록 하였다. 2011년 대전광역시 일반 수·과학 영재학급의 선발인원이 전체 학생 수의 1%가 넘는 것으로 볼 때 유소년 영재의 경우 일반 영재학급에 선발될 확률보다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집된 연구 대상들을 집단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유소년 영재캠프에 선발된 학생 수 (n=90)

구분	남	여	계	합계
2학년	24	19	43	
3학년	31	16	47	90
계	55	35	90	

2. 측정도구

창의적 성향은 하주현(2000)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사용하였다. 창의적사고력의 경우 Torrance의 언어검사와 도형검사를 사용하였으며(김영채, 2002), 다중지능검사도구는 문용린(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덕성 측정도구의 하위문항은 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Borba (2001)의 이론을 근거로 조영아(2008)에 의해 개발된 검사 도구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 사용하였다.

<표 2> 측정검사 문항

구분	하위영역(항목)	신뢰도
창의적 성향	개방성(4), 독립성(2), 모험심(4), 상상(4), 유머감(4), 이내/집착(5), 자기확신(5), 호기심(4)	.72
창의적 사고력	언어 창의적사고 도형 창의적사고	.34~.99
다중 지능	음악적지능(7), 신체·운동적지능(7), 논리·수학적지능(7), 공간적지능(7), 언어적지능(7), 인간친화지능(7), 자기성찰지능(7), 자연친화지능(7)	.68~.84
도덕성	공감(6), 분별(6), 자제(5), 존중(5), 친절(6), 관용(6), 공정(6)	.96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을 탐색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의 학년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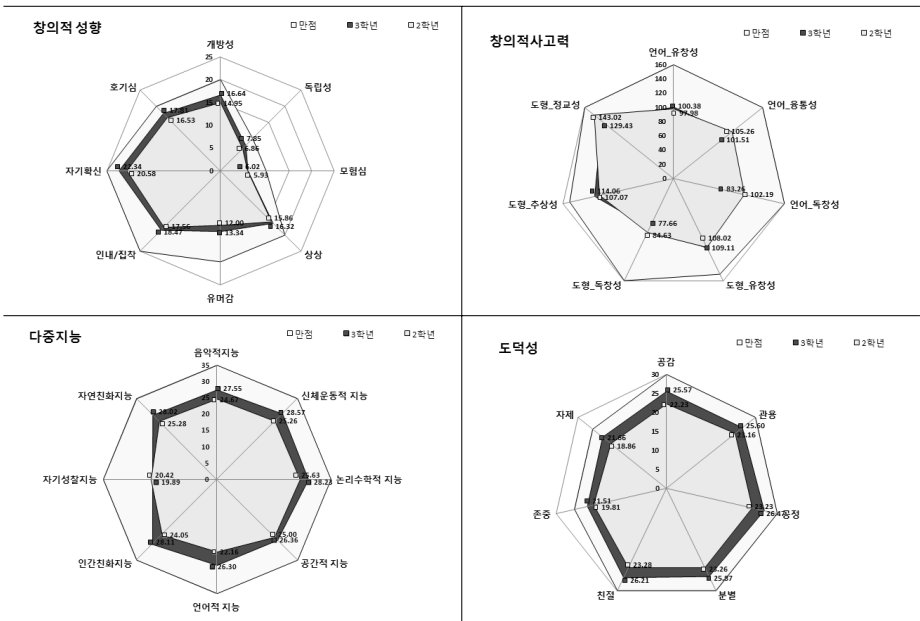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에 대한 분석은 유소년 영재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나타난 차이를 알아보았다. 학년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아래의 <표 3>에 나타난 결과는 창의적 성향의 하위항목인 개방성($F=6.67, p<.05$), 독립성($F=7.25, p<.01$), 자기확신($F=5.87, p<.05$), 호기심($F=4.40, p<.05$)에서 3학년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창의적사고력은 언어($F=31.80, p<.01$), 도형($F=5.53, p<.05$), 다중지능의 하위항목인 음악적 지능($F=6.51, p<.05$), 신체·운동적지능($F=9.50, p<.01$), 논리·수학적 지능($F=7.26, p<.05$), 언어적 지능($F=12.20, p<.01$), 인간친화 지능($F=16.08, p<.01$), 자연친화 지능($F=6.53, p<.05$), 도덕성의 하위항목 공감($F=12.86, p<.01$), 관용($F=7.26, p<.01$), 공정($F=13.79, p<.01$), 분별($F=7.49, p<.01$), 친절($F=10.08, p<.01$), 존중($F=4.75, p<.05$), 자제($F=13.25, p<.01$)의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이 3학년에서 높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창의적사고력

<표 3>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학년의 차이

독립 변수	종속변수	제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창의적 성향	개방성	63.742	1	63.742	6.672*
	독립성	22.035	1	22.035	7.259**
	자기확신	69.482	1	69.482	5.873*
	호기심	36.426	1	36.426	4.403*
창의적 사고력	언어-독창성	8,047.452	1	8,047.452	31.803**
	도형-정교성	4,151.989	1	4,151.989	5.533*
다중지능	음악적 지능	186.097	1	186.097	6.511*
	신체·운동적 지능	247.313	1	247.313	9.530**
	논리·수학적 지능	152.517	1	152.517	7.269**
	언어적 지능	383.965	1	383.965	12.200**
	인간친화 지능	370.125	1	370.125	16.089**
	자연친화 지능	168.859	1	168.859	6.536*
도덕성	공감	250.792	1	250.792	12.867**
	관용	132.920	1	132.920	7.269**
	공정	235.079	1	235.079	13.797**
	분별	153.735	1	153.735	7.493**
	친절	193.265	1	193.265	10.084**
	존중	64.644	1	64.644	4.755*
	자제	175.940	1	175.940	13.259**

** $p < 0.01$, * $p < 0.05$



[그림 1]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학년에 따른 차이

의 하위항목에서 도형의 정교성과 언어의 유창성은 2학년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의적 성향은 모험심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창의적 사고력은 언어의 하위항목인 유창성과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이 있으며, 도형은 유창성과, 독창성, 추사성과 정교성 등 4가지의 하위항목으로 나뉜다. 창의적사고력은 도형의 추상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항목에서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중지능은 음악적 지능과 신체·운동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언어적 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친화지능 등 8가지의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자기성찰 지능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도덕성은 공감과 관용, 공정, 분별, 친절, 존중, 그리고 자제 등 7가지의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항목에 있어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2.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 · 창의적사고력 · 다중지능 · 도덕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

<표 4>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성별의 차이

구분	2학년				3학년				
	남자(24명)		여자(19명)		남자(31명)		여자(16명)		
	M	SD	M	SD	M	SD	M	SD	
창의적 성향	개방성	14.3	3.39	15.8	3.72	16.4	2.54	17.1	2.62
	독립성	6.5	1.61	7.3	1.97	7.7	1.73	8.1	1.65
	모험심	6.3	2.52	5.5	2.65	5.9	2.46	6.3	2.60
	상상	14.7	4.07	17.3	2.64	15.7	3.45	17.4	3.01
	유머감	12.4	3.87	11.5	3.24	13.3	4.54	13.4	4.88
	인내/집착	17.6	4.42	17.5	4.53	18.3	3.22	18.8	2.93
	자기확신	19.9	4.10	21.4	3.55	22.4	2.81	22.2	3.34
호기심	16.3	3.70	16.8	2.57	17.8	2.47	17.9	2.68	
도덕성	공감	21.3	5.55	23.5	4.57	25.4	3.47	26.0	3.76
	관용	21.9	4.68	24.8	4.21	25.8	3.87	25.1	4.01
	공정	21.9	4.92	24.9	3.97	26.4	3.57	26.6	3.48
	분별	22.5	5.08	24.2	5.43	25.6	3.64	26.3	4.06
	친절	22.0	5.32	24.9	4.42	26.3	3.65	26.0	3.56
	존중	18.9	4.38	21.0	4.04	21.5	3.20	21.6	2.66
	자제	18.0	4.18	19.9	4.19	21.8	2.80	21.4	3.44
다중지능	음악적지능	23.2	5.16	26.6	4.89	27.2	4.84	28.3	6.48
	신체·운동적지능	26.1	4.71	24.2	5.46	29.1	4.52	27.6	6.14
	논리·수학적지능	24.2	4.55	27.5	3.82	27.5	4.94	29.8	3.70
	공간적 지능	25.0	3.93	24.9	3.39	26.5	4.16	26.1	4.01
	언어적 지능	21.3	5.71	23.3	5.82	25.9	5.52	27.0	5.43
	인간친화지능	22.5	4.85	25.9	4.49	28.1	5.15	28.1	3.69
	자기성찰지능	20.6	3.60	20.2	3.64	20.0	4.23	19.6	4.63
	자연친화지능	24.4	4.90	26.4	4.03	27.8	5.73	28.5	5.13

창의적 사고력	언어	유창성	94.3	21.53	102.6	16.05	98.9	12.00	103.3	11.46
		융통성	104.4	19.28	106.4	12.04	101.0	9.34	102.4	7.37
	도형	독창성	99.8	21.14	105.2	17.41	84.0	12.27	81.8	10.51
		유창성	109.3	20.92	106.4	20.58	109.2	18.27	108.9	30.76
		독창성	81.1	20.42	89.1	17.59	75.0	16.34	82.9	20.58
		추상성	103.9	35.38	111.1	24.01	111.5	21.51	119.1	29.71
	정교성	142.6	20.57	143.6	19.40	120.9	35.94	145.9	16.74	

** $p < 0.01$, * $p < 0.05$

<표 5>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성별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2학년	창의적 성향	상상	66.979	1	66.979	5.425*
		도덕성	관용	90.078	1	90.078	4.483*
	공정		94.052	1	94.052	4.582*	
	3학년	창의적사고력	음악적 지능	123.477	1	123.477	4.849*
			논리·수학적 지능	115.976	1	115.976	6.443*
			인간친화지능	123.001	1	123.001	5.585*
	도형_정교성	6,563.868	1	6,563.868	6.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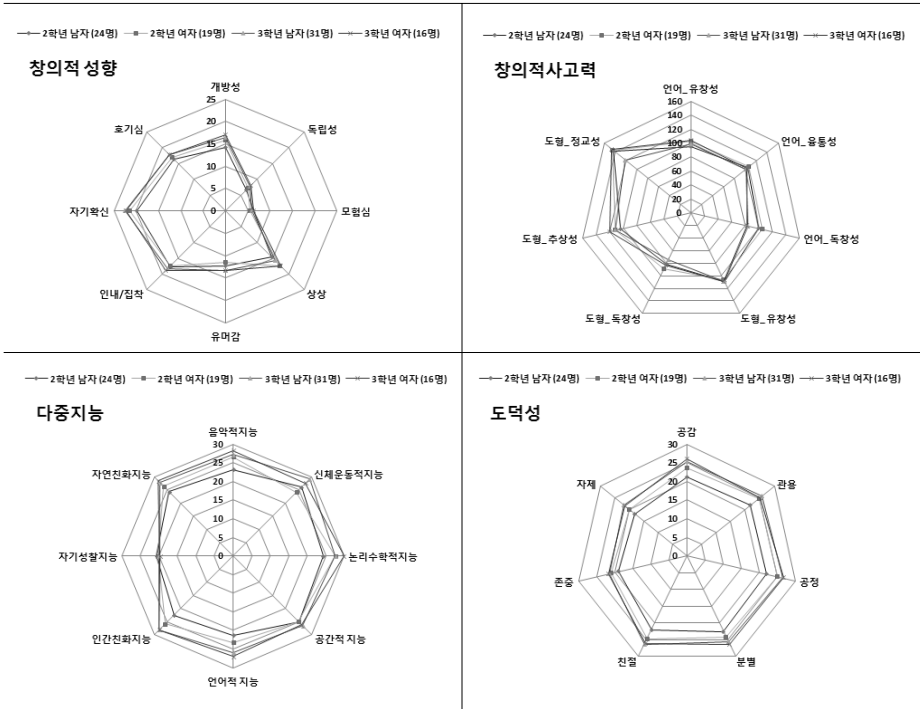
** $p < 0.01$, * $p < 0.05$

위의 <표 5>는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창의적사고력·다중지능·도덕성의 성별에 따른 결과이며, 창의적 성향의 하위항목인 상상($F=5.44$, $p < .05$), 도덕성인 관용($F=4.48$, $p < .05$), 공정($F=4.58$, $p < .05$)과 다중지능의 하위요인 음악지능($F=4.84$, $p < .05$), 논리·수학지능($F=6.44$, $p < .05$), 인간친화지능($F=5.58$, $p < .05$)에서 2학년 여학생과 남학생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3학년과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창의적사고력 도형의 하위영역인 정교성($F=6.87$, $p < .05$)부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기위해 <표 4>의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았을 때 2학년 남학생이 모든 하위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2학년 여학생이 전체영역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학년은 창의적 성향, 다중지능, 도덕성의 하위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창의적사고력은 각 학년별 성별을 본 결과 언어의 유창성과 융통성, 도형의 유창성 등은 학년별, 성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독창성은 3학년의 남아가 2학년의 남녀 학생보다 점수가 매우 낮으며, 3학년은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형의 하위항목인 독창성과 추상성은 2, 3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형의 하위항목인 정교성은 3학년 남학생이 가장



[그림 2] 유소년영재의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의 성별의 차이

났으며, 2학년 남녀 학생과 3학년 여학생의 점수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주관 관찰추천을 통해 선정된 초등학교 2, 3학년 9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을 학년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들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 창의적사고력· 다중지능· 도덕성은 2학년과 3학년은 많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3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성향의 경우 하위요인에서 개방성, 호기심, 자기확신, 인내/집착, 유머감, 상상, 독립성의 부분에서 3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창의적사고력은 언어의 유창성과 도형의 독창성 부분에서는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점수가 다소 낮은 점수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주관적인 창의적 과정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입학기에 창의력이 감소한다(Smith & Carlsson, 1985)는 것과 창의적 인성은 아동기 이후 필요한 요소이며, 4학년에 호기심이 정점에 도

달한다(Csikszentmihalyi, 1996; 하주현, 2000)는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교육적 변화, 형식적 교육환경, 사회화의 압력,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활동의 범주가 인지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창의적 능력이 잠재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하주현, 2007). 그러므로 2학년과 3학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환경적 변화의 노출정도, 양육방식, 사회적 탐색에서 오는 부모와 교육기관의 문화적 적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이 시기의 아동들이 성숙해나가는 과정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더불어 창의적인 사람은 개인과 연령, 환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개인의 성취를 둘러싼 다양성과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자유롭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이경은, 2010).

다음으로 다중지능의 자기성찰지능을 제외한 전체하위영역과 도덕성의 전체하위영역에서 3학년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영재, 수·과학영재, 일반초등학교 학생의 다중지능의 비교(김주연, 2009)의 연구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Gardner (1983, 1999)의 다중지능은 아동이 가지는 능력과 흥미라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자는 다중지능에 있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자기성찰지능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유소년 영재의 2, 3학년 모든 집단에서 자기성찰 지능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용린(2000)은 자기성찰지능의 경우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자신을 다지고 성공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는 힘이 자기성찰이라 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인 창의적 성향에서 독립성이 낮은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 아동들의 특성이 목적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발달이 미흡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덕성을 알아보는 결과에서 하위 모든 영역에 있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도덕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 행하는 생활양식이며 형식이다(정옥분, 2004; 남궁설화, 2003).

Boss (1994)가 도덕성을 들어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과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보살핌, 덕, 감정이입과 양심으로 간주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후속연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소년 영재의 창의적 성향의 하위항목인 상상($F=5.44, p<.05$), 도덕성인 관용($F=4.48, p<.05$), 공정($F=4.58, p<.05$)과 다중지능의 하위요인 음악지능($F=4.84, p<.05$), 논리·수학지능($F=6.44, p<.05$), 인간친화지능($F=5.58, p<.05$)에서 2학년 여학생과 남학생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3학년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창의적사고력 도형의 하위영역인 정교성($F=6.87, p<.05$) 부분에서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발달에 따른 이해와 영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상담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진행자들은 힘겨운 시간들 이지만 매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수준 높은 상담, 검사도

구의 진화를 기대해 본다. 또한 유소년 영재의 특성을 살피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소년 영재 캠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경으로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으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김영채 (1998).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이론개발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채 (2002). **Khatena-Torrance 창의력 검사요강**. 창의력 한국 FPSP/현곡 R&D.
- 김주연 (2009) **영재와 일반초등학생의 다중지능 특성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남궁설화 (2003).기본적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발-윌슨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도덕교육학연구**, 4(1), 1-22.
- 문용린 (2004). **다중지능**. 서울: 비즈니스북스.
- 이경은 (2010). 대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학습몰입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0(2), 45-59.
- 임규혁, 임웅 (2007).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여홍 (2003).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9(1), 79-101.
- 전경원 (200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전경원 (2003).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석희 (1996). **우리 아이는 어느 분야의 영재일까**. 서울: 사계절.
- 조영아 (2008). **초등학교 고학년용 도덕지능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하주현 (2000).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창의적 인지와 창의적 인성의 발달경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하주현 (2007). **눈이 번쩍 띄는 창의력**.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순미, 김선, 박숙희, 이경화, 성은현 (2005). **창의성**. 서울: 학지사.
- 허창재 (2002).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 (2008). **몰입의 즐거움** [이희재, 역]. 서울: 해냄출판사. (원본출간년도: 1999).
- Csikszentmihalyi. M. (2008). **창의성의 즐거움** [노혜숙, 역]. 서울: 북로드. (원본출간년도: 1996).
-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5th Ed). Boston: Allyn & Bacon.
- Gallagher, V. (1992). Notes from the editor's desk.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 Gardner, H. (1993). **마음의 틀** [이경희, 역]. 서울: 양서원. (원본출간년도: 1983).
- Gardner, H. (2001).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역]. 서울: 김영사. (원본출간년도: 1999).
- Guilford, J. P. (1959).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 Renzulli, J. S., & Reis, S. M. (2003).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Developing tive and productive giftedness. In Colangelo, N., & Davis, G. A.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184-203). Boston, MA: Allyn & Bacon.
- Smith, G. J. W. & Carlsson, I (1985). Creativity in middle and late school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8, 329-343.
- Torrance, E. P. (1972). Predictive validity of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6, 236-252.
- Urban, K. K. (1995). Creativity-A componential approach. *A paper presented in Post Conference China Meeting of the 11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Beijing, China.

= Abstract =

An Exploration on the Creative Disposition, Creative Thinking Power, Multiple Intelligences and Morality of Gifted Children

Bong-Sun Ryu

Daejeon Munjung Elementary School

Gyoung-Eun Lee

Konyang University

Seong-Yong Hong

KAIST

Gifted children cultivate their many talents through experience.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e talents or abilities of gifted childr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various types of environment for their exploration from the early stage of their school age. In addition, knowing their concern, aptitude and interest from the early stage of their school age will be much helpful for them to grow, advance and search for their future career path.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through tests on the creative disposition, creative thinking power, multiple intelligences and morality of gifted children at the early stage of their school age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gifted children studies. Accordingly, 90 gifted children were selected a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rough observation and recommendation. The result showed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econd grade and the third grade in their creative disposition, creative thinking power, multiple intelligences and morality according to school year. As for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he second grade female student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sub-domain of creative disposition, multiple intelligences and morality and the third grade showed no differences. Such study result shows that students in upper school year clearly have their own sense of purpose.

Key Words: Gifted children, Creative disposition, Creative thinking power, Multiple intelligences, Morality

1차 원고접수: 2011년 11월 14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12월 20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12월 26일